

## 서울대 세미나 강연 소개글

“북극은 어디일까요?”

“북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얼음, 눈, 흰색, 북극곰, 오로라, 백야, 추위...

북극에서 연상하는 낱말은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북극점, 북극해, 시베리아, 그린란드, 알래스카...

북극이 어디인지 알 것 같지만 막상 정의를 내리려 하면 막막해집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던 북극이 사실은 수많은 오해에 묻힌 미지의 세계인 것이죠.

북극은 흰 눈에 덮인 얼음 빙원만 펼쳐진 곳이 아닙니다. 두터운 얼음에 덮여 있는 그린란드를 제외하고 겨울이면 눈에 묻히고 여름이면 눈이 녹으면서 토양이 드러납니다. 북극의 육상 생태계는 일 년 내내 땅 속이 얼어 있는 동토 위에 있지만 동토의 표면도 여름이면 살짝 녹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3,000 여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북극 툰드라에서 먹이그물은 단순합니다. 북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가 빠르게, 그리고 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음이 사라지면서 해빙에 잇대어 살아온 북극곰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북극의 아름다운 환경과 북극 생물들이 극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북극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와 이런 변화가 중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누려고 합니다.